

경주지역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 오류 분석

權 芙 經*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전체 흐름 문제 |
| II. 어휘적 오류 | V. 결 론 |
| III. 문법적 오류 | |

I. 들어가는 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되면서 경주는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관광시장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13억 인구의 거대한 해외 여행시장 잠재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1998년 5월에는 중국이 한국을 여행자유화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방한 중국인이 평균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불과 1년여 만에 일본,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인바운드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 6월부터는 한국여행 자유화 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중국인 방한객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경 전세계적으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비교적 나쁘지 않은 증가율”이며 “문제는 좀 더 많은 중국 관광객 유치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달려있다”고 말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講師

했다.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이끌 선도도시로 선정된 경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홍보를 특특히 해왔으며, 일반 방송프로그램 뿐 아니라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경주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금 경주의 어느 유적지에서도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는 배치되어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중국어로 된 번역안내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물의 번역에 오류가 많고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국가의 신뢰도도 손상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중국대륙, 홍콩, 대만 등지에서 온 중국인들이 경주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보물의 올바른 중국어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안내 책자에서는 중국어 표현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지나치기 쉬운 안내서의 외국어 번역, 특히 중국어 번역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중 번역 연구에 있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관광 안내 책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안내 책자 번역은 소설 등 문학작품 번역과는 달리 독특한 번역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문번역에 있어 번역 전략이나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김난미(2003), 임소영, 김지선(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은 오류 현상을 크게 어휘, 통사, 문체와 표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인 분류가 없고 오류 원인 설명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필자가 경주 지역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를 살펴본 결과, 어휘 오류 외에 문법적 오류나 문장 형식 오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11월 경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하여 터미널, 관광 안내소등에 배치한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를 수집하여 발생한 오류의 원

인 분석을 거쳐 향후 정부나 개인 차원의 번역활동과 중국어 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역의 관광안내소에서 배포된 중국어 관광 안내책자를 중심으로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 원인을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류를 분류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오류 분류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해석이론에서는 번역과정을 일반적으로 크게 이해와 재 표현으로 구분하였으며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해와 재 표현이라는 과정에 준거하여 출발어 텍스트의 메시지 이해, 도착어 텍스트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근희(2008:90)는 오역(mistranslation)의 검증은 원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와 번역문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번역에서의 오역은 이 두 과정 중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완전한 오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원문을 이해하였지만 도착어로 재 표현할 때 잘못된 경우도 오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상술한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어 번역문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을 수집 정리하여 오류 유형을 분류하며, 출발어와 도착어를 대조하면서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여 오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어휘적 오류

어휘적 오류에서는 한자어의 오용, 유의어의 오용, 단어 결합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한자어의 오용

한국은 일찍이 중국 한자어를 도입하여 한자를 사용해왔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자어를 외래어로 간주하지 않고 고유어휘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한자어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중국어는 배우기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한자어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길 때 우리가 쉽게 여겨 한국 한자어를 중국어 도착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종종 오류를 범하게 된다. 기존에 한국 한자어와 중국 한자어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번역에 있어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필자는 안내책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자어 오역 현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의 오용

동형이의 한자어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어를 가리키며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어는 전체 한국 한자어의 62%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¹⁾ 번역에 있어서 동형이의 한자어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내 책자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① (五陵) 在境內有祠堂崇德殿和關英夫人出生的地方—關英井區。

(오릉) 경내에는 사당 송덕전이 있고, 알영부인이 태어난 알영정터가 있다.

→ 陵園內有一個名爲崇德殿的祠堂，祠堂往北是關英井址，據說關英夫人就出生在這裏。

중국어에서 ‘境內’은 ‘국내, 나라 안’이란 뜻으로 쓰이나 한국어에서는 ‘일정한 지역의 안’이란 뜻으로 쓰인다. 원문의 문맥에 따르면 ‘오릉 안’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 번역에서는 번역자의 부주의로 한국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경내(境內)’

1) 全香蘭, <漢韓同形詞偏誤分析>, 漢語學習, 2004.3.

를 이처럼 오역한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② (芬皇寺) 境內有模仿磚塔的國寶第30號的芬皇寺模磚石塔, 是新羅時代最早修建的石塔。
 (분황사) 경내에 전탑을 모방한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으며, 신라시대 석탑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 寺內的模磚石塔被指定為韓國第30號國寶, 是新羅時代最早修建的石塔。

위 예문에서 ‘경내’는 ‘절 안’이란 뜻이므로 대안 번역처럼 ‘寺內’로 수정해야 문맥에 부합하다. 위 예문처럼 중국과 한국의 동형 한자어 가운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지만 외연적 의미 범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도 자주 보인다.

- ③ (斷石山) 金庾信將軍在得到難勝的傳授後, 用精通的神術, 一刀砍斷了岩石, 從此這裏被稱為斷石山。
 (단석산) 김유신장군이 난승(難勝)에게 전수받아 체득한 신술로 단칼에 바위를 자른 뒤부터 단석산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 金庾信將軍得到名叫難勝的道士的傳授, 學會奇功, 只揮一刀岩石即斷為兩截, 從此這裏被稱為斷石山。

‘신술(神術)’는 한국어에서 ‘신기한 재주’와 ‘신통한 술법’이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의미 범위가 넓은 반면, 중국어에서 ‘神術’은 ‘술법’만 가리키므로 원문의 ‘신술’을 ‘재주’를 뜻하는 ‘奇功’으로 번역해야 옳다.

- ④ (石窟庵) 是新羅藝術和科學、文化的結晶體……
 (석굴암) 신라의 예술과 과학, 문화의 결정체로서……
 → (石窟庵) 是新羅藝術、科學和文化的結晶……

‘결정체(結晶體)’는 한국어에서 화학용어로 물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노력의 결과로 얻은 보람’의 뜻도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 ‘結晶體’는 단지 물질만 가리키고 ‘노력의 결과로 얻은 보람’을 나타내려면 ‘結晶’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 예문도 위 예문처럼 한자어의 의미 범위의 차이로 인한 오역이다.

2) 용법이 다른 한자어의 오용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 가운데 형태가 같고 뜻도 같은 한자어의 수가 적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용법이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번역할 때 유의해야 한다.

- ① (慶州世界文化博覽會公園) 銜接地球村的文化體驗之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지구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체험의 장……
→ (慶州世界文化博覽會公園) 已成爲一個地球村, 遊客可在此體驗多姿多彩的世界文化……

‘장’은 한국어에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곳’이란 뜻으로 원문처럼 ‘문화체험의 장’ 또는 ‘대화의 장’과 같이 ‘~의 장’으로 쓰인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음절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어소(語素)와 결합하여 ‘場地’나 ‘場所’로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文化體驗的場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명사형 표현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사형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국어다운 문장이 될 수 있다.

- ② (星光新羅曆史紀行) 由於在遺址觀光地設置了夜間照明而使夜間旅遊更加方便……
(별빛신라역사기행) 유적지 야간조명 점등에 따라 야간경관이 더욱 좋아진 경주의 유적지들……
→ (星光新羅曆史紀行) 啟動照明設施後, 那閃爍的燈光更給各處的遺址增添了一層神秘感, 使人恍若置身於遙遠的新羅……

한국어에서 ‘조명 시설을 설치하다’ 대신 ‘조명을 설치하다’로 표현 할 수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安裝照明’으로 표현하지 않고 ‘安裝照明設施’로 표현해야 한다. ‘조명 점등’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는 ‘开启 / 启动照明設施’로 표현해야 옳다.

3) 한국에서만 쓰는 한자어의 오용

한국 한자어 가운데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중국어에 없는 것들도 적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쓸 경우 오역을 범하게 된다.

- ① (新羅歷史科學館) 石窟庵和瞻星台等新羅文物的各種模型和展示物讓人了解新羅文化的體驗館……
 (신라역사과학관) 석굴암, 첨성대 등 신라의 유물을 다양한 모형과 전시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관이다.
 → (新羅歷史科學館) 裏面陳列著石窟庵和瞻星台等新羅文物的各種模型及展覽品, 使我們可以領略新羅文化的精髓……

‘展示物’은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전시물(展示物)’을 ‘展品’이나 ‘展覽品’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원 번역에서는 ‘전시물(展示物)’을 한국어 한자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 ‘전시물’과 비슷한 표현에 ‘전시장(展示場)’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중국어에서 ‘展台’와 같은 다른 한자어로 표현해야 한다.

- ② (玉山書院) 建築物處處都有石峰韓滉、秋史金正喜等當代最高名筆留下的懸板。
 (옥산서원) 건물 곳곳에 석봉(石峯) 한호(韓濩),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등 당대 최고의 명필이 쓴 현판들이 있다.
 → (玉山書院) 隨處可見石峰韓滉、秋史金正喜等當代名儒題書的匾額。

‘현판’은 중국어에서 ‘匾額’나 ‘匾牌’로 표현하므로 대안 번역처럼 바꿔

써야 한다.

4)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어로 오해한 경우

한국어에서 발음이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한자어가 여러 개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어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문맥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 ① (新羅千年公園) 國內首次以新羅爲主題組成的主題公園。
 (신라밀레니엄파크) 국내 최초로 신라를 주제로 조성된 테마파크로.....
 → (新羅千禧公園) 是韓國國內第一個展示新羅千年歷史和文化的主題公園。

‘組成’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사용하는 한자어이고 또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뜻이 비슷해 보이므로 원 번역에서 ‘組成’으로 번역한 것 같다. 실제로 ‘組成’은 한국어에서 ‘조직을 성립시키다’란 뜻이므로 중국어에서의 뜻과 거리가 멀고 또 중국어에서 ‘組成公園’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직감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성’을 번역해내자면 ‘興建’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문장 전체를 고려한다면 대안 번역처럼 ‘是’자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 할 수도 있다.

- ② (芬皇寺) 元曉、慈藏等曾爲韓國佛教中心的大乘所呆過的寺廟。
 (분황사) 원효, 자장 등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었던 대승들이 거쳐 간 사찰이다.
 → (芬皇寺) 作爲當時的佛教聖地, 新羅的高僧元曉、慈藏等都會寓居於此。

원문에서 ‘대승들’은 원효, 자장 등 유명한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불교의 중심’은 분황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 번역은 원문의 구조를 잘

못 이해하고 ‘대승’을 불교의 유파 ‘大乘’으로 이해하였기에 위와 같은 오역이 나타났다.

5) 한자어 표기 오류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전문용어의 한자어 표기에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慶州飄岩
경주 표암
→ 慶州瓢岩

‘표암’이란 ‘박바위’를 뜻하므로 ‘瓢岩’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외에 ‘석가여래좌상’을 삼릉골 설명문에서 ‘石迦如來坐像’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 현상은 번역자의 세심한 주의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2. 유의어의 오용

대부분 중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어는 배울수록 어렵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유의어(近義詞)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뜻이 비슷하나 사용 범위나 문맥에 따라 어휘 선택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어 어휘를 많이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정확해야 한다. 번역자의 어휘 지식 부족과 부주의로 유의어를 오용한 경우가 안내 책자에서 종종 보인다.

- ① (雁鴨池) 後來成爲廢墟的荷塘有衆多的大雁和鴨子棲息，從而自朝鮮時期開始被稱爲“雁鴨池”。
(안압지) 폐허가 된 연못에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찾아 들어 조선시대 때부터 ‘안압지’라 불리게 되었다.

→ 荷塘成爲廢墟後經常有成群的大雁、野鴨在此棲息，因而自朝鮮時期起即被稱爲“雁鴨池”。

중국어에서 서면어와 구어의 차이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섞어 사용하기도 하나 ‘~부터’란 뜻을 나타낼 때 서면어인 ‘自……起’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구어인 ‘從……開始’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원 번역에서 ‘自朝鮮時期開始’로 문어와 구어를 혼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중국어 표현습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衆多的’는 주로 사람을 가리키고 사물과 동물에도 가끔 사용되나 번역문의 묘사성을 고려한다면 ‘成群的’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② (徐羅伐夜間旅遊) 是能夠體味新羅千年氣氛別具一色的夜遊體驗。

(서라벌 야간관광) 신라 천년의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의 야간관광체험.

→ a. (徐羅伐月夜遊) 是能夠感受新羅千年曆史文化氣息的別具特色的夜間旅遊。

b. (徐羅伐月夜遊) 新羅千年的曆史文化氣息將給您帶來全新的感受。

‘분위기’는 중국어에서 ‘氣氛’과 ‘氣息’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 중국어의 ‘氣氛’과 ‘氣息’를 구별하지 않고 ‘분위기’로 번역할 수 있으나, ‘氣氛’는 특정 환경에서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氣息’는 숨결이나 (문학 작품의) 정취를 가리키므로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천년의 분위기’는 천년 역사 문화의 숨결이란 뜻이므로 대안 번역처럼 ‘氣氛’을 ‘氣息’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원 번역에서 ‘體味’로 표현하였는데 결합관계를 고려한다면 ‘感受’로 바꾸는 것이 옳다.

3. 단어 결합 문제

유의어의 오용과 비슷한 문제가 바로 단어의 결합 문제이다. 단어의 결

합 문제도 번역자의 어휘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瞻星台) 是既科學化的又充滿神秘的建築物。
 (침성대) 과학적이면서도 신비함이 가득한 건축물이다.
 → (瞻星台) 代表了當時建築上的成就, 至今仍給人一種神秘感。

최근에 중국 가사나 인터넷에서 ‘充滿神秘’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자주 보이지만 사전에서 ‘神秘’는 형용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充滿”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규범화를 강조하므로 단어의 용법을 사전에 기준을 두고 ‘充滿神秘感’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科學化’는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관형어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위 번역문처럼 원문 요소와 구조대로 직역하면 문장이 어색하다. 이런 경우에 대안 번역처럼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 ② (南山浮石) 南山國師穀中的岩石形狀都很奇妙, 形成無比的壯觀.....
 (남산부석) 국사골인 이곳의 바위들은 그 모양이 기묘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 南山國師穀中的岩石形狀都很奇妙, 形成無比壯觀的景象.....

중국어에서 ‘壯觀’은 형용사이므로 ‘形成壯觀’으로 표현할 수 없고 ‘壯觀’ 뒤에 명사 ‘景象’을 덧붙여 ‘形成無比壯觀的景象’으로 표현한다면 중국어 문법에 부합하다.

- ③ (慶州世界文化博覽會公園) 是國內外數百萬遊客續以觀光的“韓國最具代表的文化體驗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는 ‘한국대표 문화축제의 장’이다.
 → (慶州世界文化博覽會公園) 目前已接待了數百萬國內外遊客, 是“韓國最具代表性的文化體驗場所”。

원문에서 ‘대표’는 ‘대표성을 지니다’란 뜻으로 ‘代表’를 ‘代表性’으로 바꿔야 ‘最具’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어 결합 오류 문제는 번역자가 단어의 품사와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문법적 오류

경주 지역 중국어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문법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번역자가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비변하게 나타나는 문법 오류 현상을 위주로 살펴본다.

1. ‘的’의 남용

중국어의 ‘的’는 주로 수식관계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인데, 번역물을 보면 모든 문장성분이나 구 사이에서 ‘的’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石窟庵是新羅藝術和科學、文化的結晶體，1995年與佛國寺一同被登錄爲聯合國教科文組織的世界文化遺產。
 신라의 예술과 과학, 문화의 결정체로서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石窟庵是新羅藝術和科學、文化的結晶，1995年與佛國寺一起被聯合國教科文組織指定爲世界文化遺產。

‘世界文化遺產’은 ‘聯合國教科文組織’과 소속관계가 없으므로 ‘的’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중국어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世界文化遺產’은 ‘聯合國教科文組織’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대안번역처럼 피동문으로 번역해야 이러한 논리적 관계가 잘 나타난다.

- ② 金庾信將軍的墓
 김유신 장군 묘
 → 金庾信將軍墓

‘김유신 장군묘’는 하나의 고유명사이고, ‘墓’가 金庾信과 소속관계가 아니므로 ‘的’를 사용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的’를 없애고 ‘金庾信將軍墓’로 대체해야 옳다.

위와 같이 ‘的’를 남용하여 구를 연결하는 것이 모두 번역자의 중국어 문법지식과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나타난 오류 현상이다 할 수 있다.

2. 존현문의 오용

존현문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나타났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기본 문장 구조는 ‘처소사(시간사)+동사(有/是)+명사’이고 문장 성분의 기본적 특징은 목적어인 명사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어 안내 책자에서 번역자의 중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한국어의 문형을 그대로 답습하였기에 “有”자문을 오용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雞林位於自瞻星台往月城的中間, 林子深處美麗的松林裏則有奈勿王陵。
 (계림) 첨성대에서 월성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며 숲 안쪽 멋진 송림에는 내물왕릉이 위치해 있다.
 → 雞林位於瞻星台和月城之間, 奈勿王陵就在這片美麗的林子里。

한국어에서 ‘위치해 있다’처럼 표현할 경우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사물이 특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문형을 선택해야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 대안 번역처럼 ‘奈勿王陵’이 고유명사이므로 ‘有’자문 대신 ‘在’자문으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야 중국어 문

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② (葺長寺遺址) 位於南山最大最深的葺長穀的頂部, 有三件寶物葺長寺三層石塔、磨崖如來坐像和石佛坐像。

(용장사지) 남산에서 가장 크고 깊은 용장골의 정상부에 있으며 보물3점 용장사터 삼층석탑과 마애여래좌상, 석불좌상이 위치한다.

→ (葺長寺遺址)位於南山最大最深的葺長穀的頂部, 葺長寺三層石塔、磨崖如來坐像和石佛坐像這三大鎮寺之寶錯落有致而又莊嚴地聳立在這座山頂。

위 문장도 마찬가지로 ‘有’자문 대신 ‘聳立在’를 사용하고 또 수식어 ‘錯落有致而又莊嚴地’를 덧붙이면 용장사유적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3. 피동문의 남용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피동문은 모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문형이지만 한국어 피동문을 중국어에서도 피동문으로 번역한다면 중국어 표현습관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번역할 때 유의해야 한다.

① (玉山書院) 是被朝鮮後期大院君書院撤令廢止的四十七個書院之一。

(옥산서원)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제외된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다.

→ 是幸免於大院君“書院撤廢令”的四十七個書院之一。

원문에서 ‘제외된 서원’을 중국어에서 직역 한다면 ‘被排除在外的書院’이 되는데 원 번역에서 ‘被’를 잘못 사용하여 원문과 상반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피동문으로 직역하는 것 보다 대안 번역처럼 의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 문장이 된다.

② (天馬塚) 被推測是在5世紀末到6世紀初築成的, ……

천마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축조된 고분으로 추정되는데…

→ 據推測天馬塚修建於5世紀末到6世紀初……

원 번역에서 ‘被推測’란 표현이 중국어 문법에 어긋나지 않으나 잘 쓰이지 않으므로 ‘據推測’로 바꿔 쓰는 것이 중국어 표현습관에 부합하는 것이다. 번역에 있어 원문의 문형대로 직역해도 무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표현 습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한다.

4. 중국어 수량명 구조의 오용

중국어의 명사 앞에는 수사와 양사가 결합하여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수사와 양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책자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의 이런 구조를 그대로 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① 堆積瞻星台的石頭三百六十一個半與陰曆一年日數相同等……

(침성대) 돌의 개수가 모두 361개 반, 즉 1년의 날짜 수와 같다는 점…

→ 瞻星台由三百六十二塊石頭砌成, 象征著陰曆一年的天數。

원 번역은 한국어 어순과 표현 방식에 따라 ‘石頭三百六十一個半’으로 번역하여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半’이란 개념이 숫자를 세는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三百六十一個半’을 ‘三百六十二’로 대체해야 한다.

② (三陵穀) 峽穀入口有三陵, 故名曰三陵。

(삼릉골) 골짜기 입구에 삼릉이 있어 삼릉골이라 불리며…

→ 峽穀入口有三座陵墓, 故名曰三陵。

한국어에서는 양사를 사용하지 않고 “삼릉”으로 표현하나 중국어에서는 명사와 수사 사이에 양사가 들어가야 옳고, 또 음절을 고려할 때 “陵”을 쌍음절인 “陵墓”로 바꾸어야 중국어 표현 습관에 부합하다.

IV. 전체 흐름 문제

중국어 번역물에서는 어휘오류나 문법오류 외에 어색하거나 중국어 표현습관에 맞지 않는 것들도 흔히 보이는데 이러한 번역 오류 역시 대부분 원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기에 나타난 것들이다.

1. 문장 성분의 배열

모든 언어가 일정한 문법적 규칙과 언어 특징에 따라 문장 성분을 배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장의 짜임새가 이 언어의 문법과 언어 특징에 어긋나는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① (國立慶州博物館) 聖德大王神鍾和華麗的金冠和佛像等, 在慶州各處挖掘出的三千多件文物陳列在考古館、美術館、雁鴨池館、特別展示館、野外展示場。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하여 화려한 금관과 불상 등 경주 곳곳에서 발굴된 3천여 점의 유물이 고고관, 미술관, 안압지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 (國立慶州博物館) 分考古館、美術館、雁鴨池館、特別展示館和露天展示場5個展區, 分別陳列著聖德大王神鍾、金冠和佛像等在慶州出土的3000多件文物。

원 번역에서는 ‘三千多件文物’가 주제이고 뒤에 오는 성분이 ‘三千多件

文物를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안내 책자의 박물관을 설명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대안 번역처럼 문장성분을 재배열하여 박물관을 주제위치에 두고 다른 성분을 모두 서술하는 부분에 나열해야 옳을 것이다. 다른 예를 보자.

② 荷塘上的船等在1975年挖掘出來的文物陳列在國立慶州博物館。

(안압지) 연못에 띄웠던 배를 포함해 1975년에 발굴된 유물이 국립경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1975年從荷塘裏挖掘出木船等許多文物, 現陳列在國立慶州博物館內。

원 번역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을 모두 주체 앞에 관형어 위치에 두었는데, 중국어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을 대부분 술어 앞에 부사어 위치에 두므로 대안 번역처럼 문장을 재구성해야 중국어 표현 습관에 부합하다.

2. 문장 형식

한국어이든 중국어이든 명사를 묘사하는 성분을 관형어 위치에 둘 수도 있고 서술어 위치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명사를 묘사하는 성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언어의 특징에 따라 또 논리적 관계에 따라 문장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어는 주어 앞에 긴 관형어를 두는 것을 꺼리지만 한국어는 주어 앞에 몇 개의 관형구를 둘 수도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하였다.²⁾ 중국어와 한국어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장 형식을 가진 이유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기에 SVO 어순을 가졌으며, 하나의 주제 뒤에 몇 개의 동사구를 가져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논리와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SOV 어순을 가진 교착어이기에, 하나의 주제 뒤에

2) 백수진, <중한조용 비교와 번역>, 《번역학연구》 2권 1호, 2001, 36쪽.

몇 개의 설명이 연이어 나오면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주제 앞에서 관형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한국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중국어로 옮길 때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어색하게 된다. 다른 예를 보자.

① 感恩寺是統一三國的文武王爲了以佛守國而開始興建的，到了其子神文王時期才完工。

감은사는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불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짓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신문왕 때 완성한 절로서.....

→ a. 感恩寺是文武王統一三國後希望借助佛法護國而開始興建的，直至文武王之子神文王時期才完工。

b. 文武王統一三國後希望借助佛法護國，由此開始興建感恩寺。感恩寺到文武王之子神文王時期才完工。

한국어에서 고유명사를 설명하는 성분이 많을 경우 문맥의 간결함을 위해 일부 설명하는 성분을 관형어 위치에 두고 나머지 성분을 서술어 위치에 두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인 반면 중국어에서는 고유명사를 묘사하는 성분을 일반적으로 이 고유명사의 뒤에 서술어 위치에 두므로 대안 번역처럼 원 번역의 관형어를 술어로 변환해야 문맥이 매끄럽고 간결하다. 그리고 주어가 感恩寺인지 文武王인지에 따라 문장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안 번역b의 경우 앞 문장의 주어가 文武王이고 문장이 복문이므로 문장의 간결함을 위해 여기에서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다음 문장에서는 주어 感恩寺를 덧붙여야 문장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주제어 앞에 뿐만 아니라 ‘是’자 판단문에서도 ‘是’의 목적어 앞에 긴 관형어를 사용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② (良洞村) 是可領略朝鮮時期儒教文化和鄉村風貌的地方。

(양동마을)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향촌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a. 是體驗朝鮮時期儒教文化、領略鄉村風貌的最佳去處。
 b. 在此可感受朝鮮時期儒教文化並領略鄉村風貌。

한국어에서 ‘~~곳이다’에서 ‘곳’ 앞에 긴 관형어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어 ‘是~~的地方’에서 일반적으로 ‘地方’ 앞에 술목구조 등과 같은 긴 관형어를 두지 않고 형용사나 어휘화한 짧은 술목구조를 선호하므로(예: 是最繁華的地方 / 不是講理的地方) 한국어에서 ‘~~곳이다’라고 해서 중국어에서 무조건 ‘是~~的地方’으로 대응 번역하면 중국어 표현습관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이 될 수 있다. 대안 번역^a처럼 ‘是體驗朝鮮時期儒教文化、領略鄉村風貌的最佳去處’로 바꾸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리고 ‘~~곳이다’를 중국어의 ‘是’자 판단문으로 대응시키기 쉬워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是~~的地方’으로 번역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번역할 때 원문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문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시 한국어의 ‘~~곳이다’ 문형을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 얘기하듯이 한국어의 ‘~~곳이다’에서 ‘곳’ 앞에 긴 관형어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바꿔 말하자면 이 ‘곳’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관형어 안에 둔다는 것이다. 즉 중국어의 ‘是’자문처럼 단순한 판단문이 아니라 이 ‘곳’을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관형어 안에 술목구조가 있을 경우 대안 번역^b처럼 원문의 중심어를 부사어 위치에 두고 관형어를 술어 위치에 두는 것이 훨씬 중국어다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번역 오류 사례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어 표현 습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번역 오류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번역자의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나타난 오류이다.

3. 문장의 잉여 성분

인간의 언어에는 꼭 필요한 정보가 꼭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보충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잉여 성분을 두는 긍정적 면도 있으나 잉여 성분으로 인해 문장이 간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표현습관에 맞지 않거나 문법적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언어마다, 문장마다 잉여 성분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르기에 번역할 때 단어 대 단어 식으로 번역하면 더욱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① 雁鴨池的規模約東西南北190m, 是人工荷塘.....
 안압지는 동서남북 양 190cm 규모의 인공 연못으로.....
 → 雁鴨池是一個東西南北長約190米的人工荷塘.....

한국어에서는 흔히 ‘규모’를 주어로 하고 뒤에 구체적인 숫자로 규모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 ‘規模’가 길이로 표현되지 않고, ‘規模宏大’나 ‘規模空前’ 등으로 표현됨으로 대안번역처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예를 보자.

- ② (芬皇寺) 境內有模仿磚塔的國寶第30號的芬皇寺模磚石塔, 是新羅時代最早修建的石塔。
 (분황사) 경내에 전탑을 모방한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으며, 신라시대 석탑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 a. 寺內的模磚石塔被指定爲韓國第30號國寶, 是新羅時代最早修建的石塔。
 b. 寺內的石塔模仿磚塔而成, 是新羅時代最早修建的石塔。目前該塔被指定爲韓國第30號國寶,

원 번역문은 원문 구조대로 직역하여 연결이 어색할 뿐더러 수식어 ‘模

仿磚塔的'가 중심어 '模磚石塔'와 의미 중복하여 수식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언어의 경제원칙과 어긋나므로 수식어를 생략하거나 '전답을 모방하다'는 뜻을 살려 두 번째 대안 번역처럼 재구성할 수도 있다.

4. 절 연결 문제

앞에서 언급하듯이 하나의 주체 뒤에 몇 가지 설명하는 성분이 나열될 수 있는 것이 중국어는 특징이다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 연결 문제와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나열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경주 중국어 관광안내 책자에서 이러한 오류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甘浦港) 是大王岩以北8km處的港口, 以低廉的價格品嚐到新鮮的生魚片。
 (감포항) 대왕암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항구로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다.
 → (甘浦港) 位於大王岩以北8km處, 遊客可在此以優惠的價格品嚐到新鮮的生魚片。

위 문장에서는 주어가 각각 '甘浦港'과 '遊客'인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불구하고 무작정 연이어 나열하였으므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안 번역처럼 주어 '遊客'와 부사어 '在此'를 덧붙여야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

다음 예처럼 한 대상에 대한 설명이 몇 개나 있을 경우 절 연결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

- ② (茸長寺遺址) 是南山最大的寺廟遺址, 梅月堂金時習曾逗留過的地方, 傳說是提筆寫金鰲神話小說的地方。
 (용장사지) 남산의 가장 큰 절터로서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며 소설 금오신화를 집필했던 곳으로 전한다.

→ (茸長寺遺址) 是南山最大的寺廟遺址, 據說梅月堂金時習曾在此隱居並撰寫了金黿神話。

원 번역에서는 세 개의 절로 용장사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두 독립된 판단문으로 표현하여 조리가 없을뿐더러 문장 짜임새도 느슨하다.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이 모두 김시습에 관한 정보이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훨씬 간결하다.

중국어 안내 책자를 보면 문형의 오용과 연결 문제로 완전 비문이 된 문장이 적지 않다. 다음 예를 보자.

③ (三陵穀) 是石佛坐像爲首的線刻如來像、磨崖石迦如來坐像等南山四十餘峽穀中佛教遺跡最多的地方。

(삼릉곡)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선각여래상, 마애석가여래대불좌상 등 남산의 40여 골짜기 중 가장 많은 불교 유적이 있는 곳이다.

→ 有石佛坐像、線刻如來像、磨崖釋迦如來坐像等, 是南山40多個峽穀中佛教遺跡最多的地方。

위 문장에서는 “石佛坐像爲首的線刻如來像、磨崖石迦如來坐像等”, “南山四十餘峽穀”과 “佛教遺跡最多的地方” 세 부분으로 삼릉곡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국어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긴 문장으로 연결하였으므로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모두 문제가 된다. 한국어에서는 긴 문장을 선호하나 중국어에서는 작은 구로 나열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기 때문에 대안 번역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명료하고 간결하다.

위에 다룬 몇 가지 오류 문제는 주로 번역자의 중국어 문법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한 오류이다 할 수 있다. 이외에 번역자가 원문 구조대로 처리할 때에도 어색한 중국어가 된다. 다른 예를 보자.

④ (佛國寺) 於751年當時的宰相金大成所創建的寺廟, 現有的面貌是1973年經過修復的。

(불국사) 751년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로 197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 (佛國寺) 751年由當時的宰相金大成指揮修建, 壬辰倭亂時期大部分建築被燒毀。我們現在看到的佛國寺是1973年修復完工以後保存到現在的樣子。

절 연결 문제는 원문 구조대로 대응 번역하였거나 번역자의 중국어 글 쓰기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의 긴 문장을 그대로 대응 번역하는 것 보다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곳에서 끊는 것도 이런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주 지역 중국어 관광 안내 책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현상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크게 어휘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 전체 흐름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특히 자주 나타나는 오류 현상에 대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면서 의미적, 문법적, 화용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차이 및 표현 습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번역 오류의 원인을 첫째는 양국 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둘째는 번역 수법 지식의 부족으로, 셋째는 사회-문화 지식의 부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소설, 드라마 번역 등은 대부분 번역 전공자나 이 학문의 전공자들이 번역하였으나, 문화 관광 홍보 책자 번역은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어를 전공한 한국인인데,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회화할 수는 있지만, 양국 언어 특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번역 수법도 단순하므로, 한국어 원문의 이해와 중국어로 재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어를 전공한 한국인의 경우, 중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은 있지만 중국어가 외국어다보니 재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의 선택과 자연스러운 중

국어의 표현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경주 지역 관광 홍보물의 중국어 번역문은 수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중국어 번역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으며, 번역 오류나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도 적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번역자의 소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활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실제로 번역 의뢰인이나 번역자들은 번역 활동에 대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들이 쉽게 여겼던 번역에 대해 전문성과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난미, <한중번역의 오역사례분석: 서울시 홈페이지 중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003.
- 남철진, <중국 관광 홍보물 『黃山精華』에 보이는 한국어 번역의 문제점 고찰>, 《中國學研究》, Vol.50, 2009.
- 朴英綠, <韓中翻譯과 글쓰기>, 《中國學論叢》, 1998.
- 백수진, <중한 조음 비교와 번역>, 《번역학연구》 2권 1호, 2001.
- 박정현, <문화재 안내텍스트의 번역 전환 양상>,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2.
- 안수미, <중한번역의 이론과 실제: 『중국조선어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임소영·김지선, <중국어 관광 안내자료 번역오류 개선방안>, 《中國學論叢》, Vol.33, 2011.
- 全香蘭, <漢韓同形詞偏誤分析>, 《漢語學習》, 2004.3.
- 韓中學, <中韓翻譯技法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운운, <한중번역에서 한자어 오류에 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
번역대학원 석사논문, 2007.12.
- 김동소, <한국어 특질론>, 정림사, 2005.
-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08.
- 이용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국학자료원, 2002.

<中文提要>

漢中翻譯的歷史源遠流長，隨著佛經翻譯的興起，其它方面的交流也頗為頻繁。尤其是中韓兩國建交後，翻譯活動的規模更是史無前例地擴大，涉及到經濟、文化、藝術等各方個面。學術界也在這一熱潮下開始關注翻譯活動本身，研究各種文本的翻譯問題。但目前主要是有關韓中影視、新聞、小說等方面的研究，旅遊方面的研究還沒有引起學術界普遍的關注。與其它方面的翻譯相比，旅遊方面的翻譯存在更多的問題，主要原因是翻譯者多為非專業人員所致。因此本文選取慶州地區的旅遊指南手冊為研究對象，考察其中的誤譯現象，挖掘誤譯產生的根源，提出改善方案，以期對個人或政府部門的翻譯工作提供一些資料。本文把誤譯類型分為詞彙、語法和篇章三個方面來考察，把產生誤譯的根源歸結為三點。第一，譯者原語和目的語語言知識的欠缺；第二，譯者社會、文化知識的欠缺；第三，譯者翻譯手段和方法的欠缺。總之，譯者的專業水平決定翻譯的質量。一般情況下，翻譯被誤認為是一種簡單的工作，只要外語說得流利就能做好翻譯，其實不然。政府及社會各界對翻譯應該有個正確的認識，提高翻譯活動的專業性。

Key Words : 번역 오류(translation errors), 어휘(words), 문법(grammar), 화용(pragmatic), 오류 원인(causes of errors)

